



## 01

## 제1회 STOP-TB Partnership 동아시아포럼, 서울에서 열려



WHO Stop TB Partnership 사무국과 STOP-TB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제1회 STOP-TB Partnership 동아시아포럼'이, 지난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 지역의 Stop TB 파트너십 협력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결핵관계자

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태평양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결핵문제 해결, 나아가 세계결핵퇴치를 위한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특히 조르제 삼파이오 UN결핵퇴치 특별대사와 WHO Stop TB 파트너십 이사회 부의장 블래시나 쿠마르, 사무처장 루치카 디튜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WHO와 아시아지역 파트너십 가입국관계자, 결핵 고위험국 관계자 등 국제 결핵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손숙미 결핵퇴치협력위원장, 질병관리본부 이덕형 질병예방센터장, 대한결핵협회 문영목 회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수구 총재 등이 참석해 국내 외 결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

## 02

## 미 정부, 14개 국가의 신속결핵검사 보급을 위해 1,100만 달러의 추가 지원 결정

PEPFAR(에이즈 퇴치를 위한 미대통령 비상계획)은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지역 및 미얀마 등 14개 결핵 고위험국가에 Xpert장비 150대 이상과 450,000개의 검사카트리지를 제공하기 위해 1,1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Cepheid사의 Xpert MTB/RIF 기기는 결핵에 대한 자동화된 분자 진단 검사를 제공한다. 이 장비는 2시간 이내에 도말 샘플로부터 직접 결핵균 DNA와 리팜피신 내성에 연관된 변형을 발견해 낸다. 또한, 결핵 발견에 있어서 객담 도말 현미경검사보다 정확하며, 고형배지 배양검사와 비슷한 정확도를 나타낸다. 특히 에이즈 결핵 동시감염환자에 대한 도말음성 결핵 발견 시, 도말현미경검사보다 뛰어난 장점을 발휘한다.

결핵은 아프리카 지역의 에이즈 환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며, Xpert 진단기술의 확대는 결핵 및 에이즈 관리 프로그램의 역량의 진보를 통해, 결핵의 빠른 진단과 결핵 전염 및 결핵 발병의 감소, 더불어 결핵으로 인한 사망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된다.

## 03

## 결핵/에이즈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해, UNAIDS와 Stop TB 파트너십이 힘을 모아

UN에이즈프로그램(UNAIDS)은 지난 2년간 결핵·에이즈 동시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과 2011년 사이에 결핵·에이즈 동시감염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45%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결핵은 에이즈 환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주요 질병이다. UNAIDS와 Stop TB 파트너십은 결핵으로 인한 에이즈환자의 사망을 50% 낮추는 2015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새롭게 합의했다.

에이즈 환자들은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활동성 결핵의 발병 확률이 20~30배 가량 높다. 2011년 세계적으로 87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결핵을 앓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100만 명이상이 에이즈 환자 인 것으로 보인다. 임신부와 아동 역시 결핵발병의 위험이 크다. 만약 에이즈 환자인 임신부가 결핵에도 감염되었다면, 엄마와 아이의 사망위험은 더욱 커지며, 아이에 대한 에이즈 전염 위험 역시 두 배가 된다. 2011년, 170만 명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25%에 달하는 43만 명이 에이즈/결핵 동시감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 04

## 신구중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청소년 푸른 건강 찾기 결핵 예방 교육'



STOP-TB운동본부는 결핵으로부터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들과 힘을 합쳐 청소년 결핵 예방 홍보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푸른 건강 찾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청소년 결핵예방 강사 10명을 양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결핵의 심각성과 결핵의 올바른 정보를 전달

하여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 개인의 건강과 결핵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12월 18일에는 신구중학교 3학년 학생 60명이 대한결핵협회를 방문하여, 이하나 결핵예방강사와 함께 결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결핵예방교육은, 학생들에게 생소한 결핵이 왜 위험한지,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퀴즈와 조별 토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학생들은, 모르고 있던 결핵의 위험성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특히 자신도 언제든지 결핵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STOP-TB운동본부는 앞으로 이러한 청소년 결핵예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체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